

『諸病源候論』中 溫病諸候에 對한 研究

梁鍾錫·申素英·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對『諸病源候論』中溫病諸候之研究

梁鍾錫·申素英·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本篇論述의 溫病, 是冬傷于寒, 至春發病, 則所謂伏氣溫病, 佗餘新感發病의 冬溫是不同의. 因此, 其病還是屬于傷寒之類의 病情.

其中, 溫病候, 相當于本篇의 總論, 從發病의 原因, 溫病與冬溫의 鑑別, 溫病의 辨證“陰陽交”, 以及從溫病脈證變異, 觀察豫後吉凶等, 都有所論及. 以下溫病一日至九日以上候, 溫病取吐候等, 敘述溫病의 發展傳變, 其總의 過程與傷寒, 時氣及發病略同, 又其次是溫病의 常見諸證, 亦與傷寒, 時氣等大體相同, 但亦反映溫病의 特點, 尤其如溫病令人不相染易候, 對此病의 強烈傳染性和重視豫防의 論述, 是比較突出의.

關鍵詞 : 諸病源候論, 溫病, 陰陽交, 傷寒.

I. 緒論

『諸病源候論』은 韓醫學 古典中의 하나로 隋代 以前의 醫學成果를 모두 結集하고 있다. 本書에 서는 疾病의 病源과 證候를 集中의 으로 論述하고 있어 古代 病因病理學의 專門書籍이라고 할 수 있다. 本書는 『內經』, 『難經』, 『傷寒雜病論』등의 著作이 나온 이후 韓의학의 理論體系를 進一步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韓의학의 病因病機學을 개발하는데 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교신저자 : 이남구, 전남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ngoo3525@hanmail.net, Tel : 061-330-3525

本書는 모두 五十卷, 六十七門, 一千七百三十九 論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 內容中에는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五官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內容 中에는 전에 나왔던 醫書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 많은데 오랜 세월 쌓아 온 임상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溫病은 겨울에 寒邪에 感觸되었는데 바로 發病 하지 않고 體內에 潛伏되어 있다가 봄에 發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伏氣溫病이라고도 한다. 傷寒으로 말미암아 變成된 溫病은 또한 傷寒의 한 部類이기 때문에 그 病情의 傳變과 證候가 時氣, 熱病과 대체로 동일하다. 本篇에 論述되어 있는 內容中 溫病候는 總論에 해당되는데, 주로 發病의 原因과 溫病과 冬溫의 鑑別 그리고 溫病의

變證인 陰陽易, 溫病의 脈證變化, 豫後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아래의 溫病一日候에서부터 溫病九日候와 溫病取吐候 등은 溫病의 傳病過程을 敘述하고 있는데, 그 總體의인 과정은 傷寒, 時氣, 熱病과 대체로 같으며 그 뒤에 서술되어 있는 溫病에 日常의으로 나타나는 諸般證候도 역시 傷寒, 時氣 등과 비슷하다. 다만 溫病의 특징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傳染性이 매우 강하므로 豫防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관찰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논술하고 있는 溫病諸候는 비록 그 내용이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清代에 이르러 溫病學 發達의 礎石이 된 것으로 그 가치가 높다.

溫病諸候는 溫病에 대한 症候分析을 다방면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에는 時代的인 한계 때문에 일부 現實의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섞여 있고 중복된 부분도 많으며, 原書가 출간된 이래 많은 세월이 거쳐 여러 차례 重刊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 錯誤로 탈락되거나 덧붙여진 부분도 있고 誤植, 誤字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論文에서는 歷代의 版本을 참조하여 校勘을 하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포함으로써 原文의 보다 정확한 理解를 돕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1. 研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에 懸吐와 校勘을 하고 字句解·考察·國譯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清代 周學海校刊本 『諸病源候論』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본문의 단락은 그 內容에 따라 三十四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편의상 번호를 붙여 연구하였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고 가능한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가장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浦과 訓을 選擇하였다.

마. 國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으나, 文義가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意譯을 하였다.

바.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〇〇), 字句解에 (〇〇), 引用文獻에 『〇〇』으로 表示하였다.

2. 研究資料

【표 1】校勘에 인용한 文獻 및 略稱

	書名	略稱
1	元刊本 重刊巢氏諸病源候總論	元本
2	諸病源明 汪濟川, 江璣 巢氏諸病源候論	汪本
3	候論校釋에서 清 胡益謙經義齋刊活字本 巢氏諸病源候論	胡本
4	引用한 文獻 湖北官書處重刊本 巢氏病源	鄂本
5	日本正保二年刊本 重刊巢氏諸病源候總論	正保本
6	黃帝內經素問	素問
7	脈經	脈經
8	注解傷寒論	傷寒論
9	外臺秘要	外臺
10	備急千金要方	千金方

III. 本論

溫病諸候 凡三十四章論

第一章 溫病候

【原文】

經言春氣溫和하고 夏氣暑熱하고 秋氣清涼하고 冬氣冰寒이라하니 此는 四時正氣之序也라 冬時嚴寒하야 萬類深藏하니 君子固密則不傷於寒이이니와 觸冒之者는 乃爲傷耳라 其傷於四時之氣하면 皆能爲病이나 而以傷寒爲毒者는 以其最爲殺厲之氣焉이라 卽病者는 爲傷寒이요 不卽病者는 爲寒毒藏於

肌骨中^하야 至春變爲溫病이라 是以辛苦之人이 春夏必有溫病者는 皆有其冬時觸冒之所致也라

凡病傷寒而成溫者는 先夏至日者爲病溫이고 後夏至日者爲病暑라 其冬復有非節之暖을 名爲冬溫이니 毒與傷寒大異也라

有病溫者는 汗出輒復熱而脈躁이라 病不爲汗衰하고 狂言不能食하니 病名爲何也오 曰 病名陰陽交⁽¹⁾니 陰陽交者는 死라 人所以汗出者는 皆生於穀이고 穀生於精이라 今邪氣交爭於骨肉之間而得汗者는 是邪却而精勝이니 則當食而不復熱이라 熱者는 邪氣也오 汗者는 精氣也니 今汗出而輒復熱者는 是邪勝也오 汗出而脈尙躁盛者는 死라 今脈不與汗相應은 此不稱⁽¹⁾其病也니 其死明矣라 狂言者는 是失志니 失志者는 死라 今見三死하고 不見一生하니 雖愈라도 必死라

凡皮膚熱甚하고 脈盛躁者는 病溫也라 其脈盛而滑者는 汗且出也라 凡溫病人은 二三日身軀熱하니 脈疾⁽²⁾頭痛하니 食飲如故하며 脈直疾하면 八日死오 四五日에 頭痛하니 脈疾喜吐하며 脈來細⁽³⁾하면 十二日死하니 此病不治라 八九日에 脈不疾⁽⁴⁾하면 身不痛하며 目不赤하며 色不變而反利하니 脈來牒牒⁽²⁾하야 按不彈手라가 時大하니 心下革卵 하면 十七日에 死라 病三四日以下에 不得汗하며 脈大疾者는 生이고 脈細小難得者는 死不治也라 下利 腹中痛甚者는 死不治라

養生方導引法云 常以鷄鳴時에 存心念四海神名三遍하면 辟百邪正鬼라야 令人不病이라

東海神名阿明이고 南海神名祝融이고

西海神名巨乘이고 北海神名禹強이라

又云 存心氣赤 肝氣青 肺氣白 脾氣黃 腎氣黑하야 出周其身하고 又兼辟邪鬼라 欲辟却衆邪百鬼어든 常存心爲炎火如頭하야 煌煌光明則百邪不敢干之라 可以入溫疫之中이라

【校勘】

- 1) 稱: 『素問·評熱病論』에는 '勝'으로 되어 있다.
- 2) 脈疾: 『脈經』卷四第七에는 '腹滿'으로 되어 있다.
- 3) 脈疾喜吐 脈來細: 『脈經』卷四第七에는 '腹滿而吐 脈來細強'으로 되어 있다.
- 4) 脈不疾: 『脈經』卷四第七에는 '頭不疼'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陰陽交: 陽熱의 邪氣가 陰分으로 깊이 들어 陰氣가 消盡되어 나타나는 危證.
- (2) 牒牒: 牒은 疊과 通하는데, 牒牒은 脈搏이 매우 빠른 것을 말한다.

【考察】

1. '稱'이 『素問·評熱病論』에는 '勝'으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이것이 맞다.

【國譯】

經에 말하길 '春氣는 溫和하고 夏氣는 暑熱하고 秋氣는 清涼하고 冬氣는 冰寒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四時에 정상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순서를 이야기한 것이다. 겨울에는 매우 추위 만물이 깊이 伏藏하므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君子들도 이에 맞추어 인체의 정기를 견고히 지키면 寒邪에 손상을 받지 않지만 만일 이에 感觸되면 바로 손상을 받는다. 四時에 따른 비정상적인 氣運에 손상을 받으면 다 病이 되나 그 중에서도 유독 寒氣에 손상을 받을 때 피해가 심한 것은 그것이 가장 인체를 해치는 기운이기 때문이다. 바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傷寒이고, 바로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寒毒이 肌骨가운데에 잠복되었다가 봄에 증세가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溫病이다. 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봄과 여름에 溫病에 잘 걸리는 이유는 다 겨울에 寒邪에 感觸되었기 때문이다.

무릇 傷寒에 의해서 溫病이 형성되는 것은 夏

至日に 앞서 발병하는 것은 溫病이 되고 夏至日 이후에 발병하는 것은 暑病이 된다. 겨울에 다시 비정상적으로 날씨가 따뜻하여 발병되는 것을 冬溫이라고 하는데 冬溫과 傷寒은 그 증세가 매우 다르다.

溫病中에는 땀이 났다가도 문득 다시 發熱이 생기고 脈이 盛躁하여, 病이 發汗에 의해서도 좋아지지 않고 헛소리를 하며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病名은 어떻게 됩니까?

病名은 陰陽交이니 陰陽交인 경우에는 죽습니다.

사람한테 땀이 나오는 것은 다 水穀의 精氣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邪氣가 인체의 骨肉사에서 정기와 다투는 過程中에 땀이 나오는 것은 精氣가 우세하여 邪氣가 물러가는 현상이므로 마땅히 밥도 잘 먹게 되고 熱도 제발하지 않게 된다. 보통 熱은 邪氣이고 汗은 精氣이니, 이제 發汗이 되고서도 다시 熱이 나는 것은 邪氣가 우세한 것이니, 發汗이 되고서도 脈이 躁盛한 경우에는 죽게 된다. 지금 脈이 發汗에 의하여 상응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精氣가 그 病을 이기지 못하여 그런 것이니, 확실히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 狂言을 하는 것은 神志가 흐려져서 그런 것이니, 精神이 흐려진 사람은 거의 죽게 된다. 이제 死證은 세 가지나 보이고 살 수 있는 증세는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비록 증세가 조금 호전되는 때가 있을 지라도 결국은 죽게 된다.

皮膚의 熱은甚하고 脈이 盛躁한 것이 溫病이다. 그 脈이 盛하면서 滑利한 경우는 精氣가 성하여 땀이 장차 나올 것이므로 점차 호전될 것이다. 溫病에 걸린 사람은 二三日 지나면 몸에 熱이 나는데, 脈이 빠르고 頭痛이 있으며 飮食은 잘 먹으나 脈이 지나치게 빠르면 八日만에 죽고, 四五日 지난 뒤에 頭痛이 있고 脈이 빠르면서 吐하기를 잘하고 脈이 細強하면 十二日만에 죽는다. 八九日쯤 지나 脈이 빠르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으며 눈도 붉지 않고 안색에도 변화가 없으면서 오히려 下利를 하며 脈이 빠른 듯하다가도 눌러보면 無力하고 때로는 脈이 커지기도 하며

心下가 딱딱하면 十七日만에 죽는다. 病든지 三四日 안에 發汗이 되지 않고 脈이 크게 빠른 사람은 살고, 脈이 아주 細小한 사람은 죽는다. 下利에 의하여 배가 몹시 아픈 사람도 치료하기 어렵다.

養生方導引法에 말하기를 “항상 鷄鳴時에 마음속으로 四海神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 온갖 鬼神이 물러가 병들지 않게 된다. 東海神의 이름은 阿明, 南海의 神의 이름은 祝融, 西海神의 이름은 巨乘, 北海의 神의 이름은 禺强이다.”고 하였다.

또 말하길 “마음속으로 心氣의 붉은 기운, 肝氣의 푸른 기운, 肺氣의 하얀 기운, 脾氣의 노란 기운, 腎氣의 검은 기운이 온 몸을 잘 순환하고 또 兼하여 이기운들이 邪惡한 鬼神들은 몰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온갖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항상 마음속으로 둥근 불기운이 온 몸을 휘감아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鬼神이라도 범접을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第二章 溫病一日候

【原文】

溫病一日候 太陽受病이라 諸陽¹⁾主表하니 表는 謂皮膚也라 病在皮膚之間이라 故曰 頭項腰痛이라

【校勘】

1) 諸陽: 本書 卷九 「熱病一日候」에는 ‘太陽’으로 되어 있다.

【考察】

1. ‘諸陽’이 本書 卷九 「熱病一日候」에는 ‘太陽’으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이것이 맞다.

【國譯】

溫病에 걸린지 첫째 날에는 太陽經에서 病을 받는다. 太陽經은 表를 주관하는데, 表라는 것은 皮膚를 말한다. 病이 皮膚사이에 있기 때문에 頭

項과 腰脊에 痛症이 있게 된다.

第三章 溫病二日候

【原文】

溫病二日엔 陽明受病하니 病在於肌肉이라 故로 肉熱鼻乾하며 不得眠이라 故로 可摩膏火灸면 發汗而愈라

【國譯】

溫病에 걸린지 두번째 날에는 陽明經에서 病을 받기 때문에 病이 肌肉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肌肉에 熱이 나고 코가 마르며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된다. 이때에는 기름으로 문지르거나 뜸을 뜨면 發汗이 되면서 낫게 된다.

第四章 溫病三日候

【原文】

溫病三日엔 少陽受病이라 故로 胸脇熱而耳聾이요 三陽始傳病訖하야 未入於臟이라 故로 可發汗而愈라

【國譯】

溫病에 걸린지 三日째에는 少陽經에서 病을 받기 때문에 胸脇에 熱이 나면서 耳聾證이 있게 되고, 三陽經으로 병이 轉移되어 아직 臟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發汗시키면 낫는다.

第五章 溫病四日候

【原文】

溫病四日엔 太陰受病하니 太陰者는 三陰之道也라 三陽受病訖하야 傳入於陰이라 故로 毒氣入胸膈之內하야 其病咽乾腹滿이라 故로 可吐而愈라

【國譯】

溫病에 걸린지 나흘째에는 太陰經에서 病을 받으니, 太陰이라는 것은 三陰經으로 들어가는 길

이다. 三陽經으로 傳經이 끝나면 陰經으로 傳入되기 때문에 毒氣가 胸膈안으로 들어가 咽乾과 腹滿의 증상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吐하게 하면 낫는다.

第六章 溫病五日候

【原文】

溫病五日엔 少陰受病하야 毒氣入腹하니 其病口熱舌乾而引飲이라 故로 可下而愈라

【國譯】

溫病에 걸린지 五日째에는 少陰經에서 病을 받아 毒氣가 脘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病의 증상이 口에 熱이 나고 혀가 말라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攻下를 시키면 낫는다.

第七章 溫病六日候

【原文】

溫病六日엔 厥陰受病하야 毒氣入腹胃하니 其病煩滿而陰縮이라 故로 可下而愈라

【國譯】

溫病에 걸린지 六日째에는 厥陰經에서 病을 받아 毒氣가 脘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病의 증상이 煩滿하고 陰囊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攻下를 시키면 낫는다.

第八章 溫病七日候

【原文】

溫病七日엔 病法當愈하니 此는 三陰三陽傳病竟故也라 今七日病不除者는 欲爲再經病也니 再經病者는 是經絡重受病也라

【國譯】

溫病에 걸린지 七日째에는 病이 通常의으로는

나아야 하니, 이는 三陰三陽으로 모두 傳經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七日째가 되어도 病이 낫지 않는 것은 病이 再經되려는 것이니, 病이 再經된다고 하는 것은 經絡에 다시 病이 發病하는 것을 말한다.

第九章 溫病八日候

【原文】

溫病八日已上病不解者^는 或是諸經絡重受於病^{거나} 或經發汗吐下之後에 毒氣未盡^{하니} 所以病證不罷也^라

【國譯】

溫病에 걸린지 八日以上이 지났는데도 病이 낫지 않는 것은 或 모든 經絡에 다시 病이 發病하거나 或 發汗과 嘔吐 그리고 攻下를 거친 後에도 毒氣가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病證이 再發되는 것이다.

第十章 溫病九日已上候

【原文】

溫病九日已上病不除者^는 或初一經受病^{하야} 卽不能相傳^{거나} 或已傳三陽^訖而不能傳於三陰^{하니} 所以停滯累日^{하야} 病證不罷^{하니} 皆由毒氣未盡^{하야} 表裏受邪^{하야} 經絡損傷^{하코} 臟腑俱病也^라

【國譯】

溫病에 걸린지 九日以上이 되어도 病이 낫지 않는 것은 或 처음 一經에 病이 생겼다가 바로 傳移되지 않거나 或 이미 三陽經에는 傳移가 되었으나 三陰經으로 傳移되지 않아 생기니,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病이 停滯되어 病證이 없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다 毒氣가 다 물러가지 않아 表裏가 모두 邪氣를 받아서 經絡이 損傷되고 臟腑가 모두 病들어 오래 가게 되는 것이다.

第十一章 溫病發斑候

【原文】

夫人冬月觸冒寒毒者^가 至春始發病^{하면} 病初在表^{하니} 或已發汗吐下^나 而表證未罷^{하야} 毒氣不散^{이라} 故發斑瘡^{이라} 又冬月天時溫暖^{이어늘} 人感乖戾之氣^{하야} 未卽發病^{이라} 至春又被積寒所折^{하야} 毒氣不得發泄^{하코} 至夏遇熱^{하야} 溫毒始發出於肌膚^{하야} 斑爛隱軫如錦文也^라

【國譯】

겨울에 寒毒에 感觸되었다가 봄에 이르러 비로소 發病하는 하는 것을 溫病이라 하는데, 이때에는 病이 表에 있으므로 或 發汗이나 嘔吐 그리고 攻下 등의 方法으로 治療를 했는데도 表證이 없어지지 않아 毒氣가 체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斑瘡이 발생한다. 또 겨울에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따뜻한데 사람들이 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여 乖戾之氣에 感觸되었다가 바로 發病하지 않고 체내에 잠복되어 있는데, 봄에 이르러 積滯되어 있던 寒毒이 發動하여 흘러지지 않고, 여름에 이르러 熱邪를 만나 溫毒이 肌膚로 나오게 되면 비단 무늬 색깔과 같은 隱軫이 발생한다.

第十二章 溫病煩候

【原文】

此^는 由陰氣少陽氣多^라 故身熱而煩^{이라} 其毒氣在於心腑¹⁾而煩者^는 則令人悶而欲嘔²⁾하코 若其胃內有燥糞而煩者^는 則謬語而繞臍痛也^라

【校勘】

- 1) 腑: 文脈으로 보아 衍文으로 보인다.
- 2) 嘔: 鄂本에는 '吐'로 되어 있다.

【國譯】

이는 陰氣는 적고 陽氣는 많기 때문에 몸에 熱이 나면서 번민하게 된다. 그 毒氣가 心藏에 있

어 煩悶症狀이 생긴 경우에는 煩悶과 더불어 嘔吐를 하게 되고, 만약 胃內에 燥糞이 있어 번민하는 경우에는 헛소리를 하면서 배꼽주위가 아프게 된다.

第十三章 溫病狂言候

【原文】

夫病甚則棄衣而走하며 登高而歌하고 或至不食數日이라도 逾垣上屋하니 所上非其素時所能也어는 病反能者는 皆陰陽爭而外并於陽이라 四肢者는 諸陽之本也니 邪¹⁾盛則四肢實하고 實則能登高而歌하며 熱盛於身이라 故로 棄衣而走요 陽盛이라 故로 妄言罵詈을 不避親戚²⁾이요 大熱遍身이라 狂言而妄聞視³⁾也라

【校勘】

- 1) 邪: 『素問·陽明脈解篇』에는 '陽'으로 되어 있다.
- 2) 親戚: 『素問·陽明脈解篇』에는 '親疎'로 되어 있다.
- 3) 妄聞視: 本書 卷九 「時氣狂言候」에는 '妄見妄聞'으로 되어 있다.

【考察】

1. '邪'가 『素問·陽明脈解篇』에는 '陽'으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이것이 맞다.
2. '親戚'이 『素問·陽明脈解篇』에는 '親疎'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맞다

【國譯】

病이甚해지면 옷을 벗고 달려가며 높은 곳에 올라 노래를 하고 或 밥을 며칠 굶고도 담을 넘고 지붕위로 올라가니,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도 病든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陰陽이 다투다가 陽으로 併合되기 때문이다. 四肢는 모든 陽의 根本이니, 熱邪가 盛하면 四肢가 實해 지고 四肢가 實해지면 높은 곳에 올라 노래

하고 熱이 盛해져 있기 때문에 옷을 벗고 달려가는 것이며 陽이 盛하기 때문에 親疎를 가리지 않고 헛소리를 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고 온몸에 熱이 심하기 때문에 狂言을 하면서 헛것이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다.

第十四章 溫病嗽候

【原文】

邪熱客於胸膈하야 上焦有熱하면 其人必飲水하니 水停心下則上乘於肺라 故로 令嗽라

【國譯】

邪熱이 胸膈로 침범하여 上焦에 熱이 있게 되면 반드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때 만일 水氣가 運化되지 않고 心下에 정체되어 있으면 위로 肺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된다.

第十五章 溫病嘔候

【原文】

胃中有熱한대 穀氣入胃하야 與熱相并하야 氣逆則嘔라 或吐下後에 飲水多하면 胃虛冷하야 亦爲嘔也라

【國譯】

胃중에 원래부터 熱이 있는데, 飲食이 胃로 들어가 熱과 併合되어 氣가 逆上되면 嘔逆症이 생긴다. 或 嘔吐나 攻下를 한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면 胃가 虛冷해져 嘔逆症이 생기기도 한다.

第十六章 溫病噦候

【原文】

伏熱在胃하면 令人胸滿하고 胸滿則氣逆하고 氣逆則噦이라 若大下後에 胃氣虛冷하야도 亦令致噦이라

【國譯】

熱이 胃중에 潛伏되어 있으면 胸滿하게 되고,

胸滿症이 있으면 氣가 逆上하고, 氣가 逆上하면
땀꼭질을 하게 된다. 또한 크게 下利를 한 뒤에
胃氣가 虛冷해져도 땀꼭질이 생길 수 있다.

第十七章 溫病渴候

【原文】

熱氣入於腎臟^{호대} 腎臟惡燥^{하니} 熱盛則腎燥^{하고}
腎燥則渴引飲^{이라}

【國譯】

熱氣가 腎臟으로 侵犯할 경우에 腎臟이라는 것
은 원래 燥를 싫어하니, 만일 熱이 盛하면 腎臟
이 乾燥해지고 腎臟이 건조해지면 물을 마시게
된다.

第十八章 溫病取吐候

【原文】

溫病熱發四日^에 病在胸膈^{하면} 當吐之愈^라 有得
病一二日^에 便心胸煩滿^은 爲毒已入^{하고} 兼有痰實^하
하니 亦吐^之라

【國譯】

溫病으로 熱이 發生한지 나흘만에 病이 胸膈에
있으면 마땅히 嘔吐시켜야 낫는다. 때로는 溫病
에 걸린지 하루나 이틀만에 문득 心胸이 煩滿해
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毒氣가 이미 가슴으
로 들어간데다가 痰實證까지 겹쳐 있는 것이니
역시 嘔吐시켜야 한다.

第十九章 溫病變成黃候

【原文】

發汗不解^{라야} 溫毒氣瘀結在胃^{하면} 小便爲之不利^라
故^로 變成黃^{하야} 身如橘色^{이라}

【國譯】

發汗을 시켰는데도 熱이 풀지 않아 溫病에 의
한 毒氣와 瘀結이 胃에 있게 되면 小便이 잘 나
가지 않기 때문에 몸이 橘色처럼 노랗게 변하게
된다.

第二十章 溫病咽喉痛候

【原文】

熱毒在於胸膈^{하야} 三焦隔絕^{하야} 邪客於足少陰
之經^{하면} 下部脈不通^{하야} 熱氣上攻喉咽^{이라} 故^로 痛
或生瘡也^라

【國譯】

熱毒이 胸中에 있어 三焦가 막혀 邪氣가 足少
陰經으로 侵犯하면 下部脈이 不通하여 熱氣가 咽
喉를 공격하기 때문에 痛症이 오거나 헛게 된다.

第二十一章 溫病毒攻眼候

【原文】

肝開竅於目^{하니} 肝氣虛^{한대} 熱毒이 乘虛上冲於
目^{이라} 故^로 赤痛^{이요} 重者^는 生瘡翳也^라

【國譯】

肝은 눈으로 구멍이 열려 있는데, 肝氣가 虛한
상태에서 熱毒이 虛한 틈을 타고 目으로 上冲하
기 때문에 눈이 붉고 아픈 것이고, 重한 경우에
는 헛거나 翳膜이 생긴다.

第二十二章 溫病衄候

【原文】

由五臟熱結所爲^라 心主血^{하고} 肺主氣而開竅
於鼻^{하니} 邪熱이 傷於心^{이라} 故^로 衄^{이니} 衄者^는 血從
鼻出也^라

【國譯】

五臟에 熱이 鬱結되어서 생긴다. 心은 血을 주

관하고 肺는 氣를 주관하여 코로 구멍이 열려 있는데, 邪熱이心を 손상하여 血이 妄行하게 되던 코로 噴出되기 때문에 鼻衄이 되니, 衄이라는 것은 코피를 말한다.

第二十三章 溫病吐血候

【原文】

諸陽受邪하면 熱初在表하니 應發汗而不發하여 致熱毒入深하여 結於五臟하여 內有瘀血積이라 故로 吐血也라

【國譯】

모든 陽分(體表)에서 邪氣를 받으면 熱이 表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發汗을 시켜야 하는데, 發汗을 시키지 않게 되면 熱毒이 깊이 들어가 五臟에 鬱結되어 안으로 瘀血이 쌓이기 때문에 吐血하게 된다.

第二十四章 溫病下利候

【原文】

風熱入於腸胃라 故로 令洞泄이라 若挾毒則下黃赤汁及膿血이라

【國譯】

溫病으로 생긴 風熱이 腸胃로 들어갔기 때문에 泄瀉가 생기는 것이다. 萬若 毒을 끼고 있으면 黃赤色의 고름이나 膿血이 섞인 大便이 나오게 된다.

第二十五章 溫病膿血利候

【原文】

熱毒甚者是 傷於腸胃라 故로 下膿血如魚腦거나 或如爛肉汁하니 此는 由溫毒氣盛故也라

【國譯】

熱毒이 甚한 경우에는 腸胃에 손상을 주기 때문

에 물고기 腦髓나 썩은 고기의 汁과 같은 膿血을 쏟게 되니, 이는 溫毒의 氣運이 盛하기 때문이다.

第二十六章 溫病大便不通候

【原文】

脾胃有積熱한대 發汗太過則津液少하여 使胃乾하고 結熱在內라 故로 大便不通이라

【國譯】

脾胃에 熱이 많이 쌓여 있는데, 發汗을 지나치게 하면 津液이 적어져 胃가 건조해지고 熱이 속으로 鬱結되기 때문에 大便이 不通하게 된다.

第二十七章 溫病小便不通候

【原文】

發汗後에 津液少하고 膀胱有結熱하여 移入於小腸이라 故로 小便不通也라

【國譯】

發汗을 시킨 다음에 津液이 적어지고 膀胱에 熱이 鬱結되어 小腸으로 移入되기 때문에 小便이 不通하게 된다.

第二十八章 溫病下部瘡候

【原文】

熱攻腸胃하여 毒氣既盛하면 穀氣漸衰라 故로 三蟲動作하여 食人五臟則下部生瘡이요 重者는 肛爛見腑臟이라

【國譯】

熱이 腸胃를 공격하여 毒氣가 盛해지면 穀氣(胃氣)는 漸漸 衰弱해진다. 이때에 三蟲이 妄動하여 사람의 五臟을 寄生하면 生殖器가 壞게 되고, 重症인 경우에는 肛門이 壞어 창자까지 壞히 드러나게 된다.

第二十九章 溫病勞復候

【原文】

謂病新瘥에 津液未復하고 血氣尙虛이늘 因勞動
早하야 更生於熱하야 熱氣還入經絡하야 復成病也라

【國譯】

病에서 막 회복되었을 때에는 아직 津液이 復
舊되지 않았고 血氣도 여전히 虛한 상태인데, 지
나치게 일찍 勞動을 하게 되면 다시 熱이 발생하
여 熱氣가 다시 經絡으로 침입하여 病이 재발되
는 것을 勞復이라고 한다.

第三十章 溫病食復候

【原文】

凡得溫毒病新瘥에 脾胃尙虛하야 穀氣未復하니
若食犬猪羊肉과 并腸血及肥魚炙脂膩食하면 此必
大下利하고 下利則不可復救라 又禁食餅餌 炙膾
棗 栗 諸生果難消物이니 則不能消化하야 停積在
於腸胃하야 便脹滿結實하고 大小便不通하야 因更
發熱하야 復成病也라 非但雜食이요 梳頭洗浴諸勞
事等도 皆須慎之라

【國譯】

溫病에서 막 벗어났을 때에는 脾胃가 여전히
虛하여 消化機能이 완전하지 않으니, 이때에 만
약 개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과 內腸의 피, 기
름진 물고기의 회나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크
게 泄瀉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구할 수 없
게 된다. 또 떡이나 엿, 불고기나 생선회 그리고
대추나 밤 등 消化되기 힘든 음식은 삼가야 하는
데, 만일 이들을 먹게 되면 消化를 못시키게 되
므로 腸胃에 飲食이 停滯되어 脹滿이 생기고 大
小便이 不通되며 거기에 다시 發熱이 생겨 病이
재발하는 것을 食復이라고 한다.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는 것도 가급적 삼가야 한다.

第三十一章 溫病陰陽易候

【原文】

陰陽易病者는 是男子婦人溫病新瘥未平復이어
는 而與之交接하야 因得病者니 名爲陰陽易也라 其
男子病新瘥未平復이어늘 而婦人與之交接得病者
를 名陽易이요 其婦人得病하야 雖瘥나 未平復한대 男
子與之交接得病者를 名陰易이라 若二男二女면 并
不自相易이라 所以呼爲易者는 陰陽相感動하야 其
毒度著於人하야 如換易也라 其病之狀은 身體熱沖
胸 頭重不舉 眼中生眵 四肢拘急 小腹疝痛 手
足舉하니 皆卽死요 其亦有不卽死者는 病苦小腹裏
急 熱氣沖胸 頭重不欲舉 百節解離 經脈緩弱
氣血虛 骨髓竭 便恍恍吸吸 氣力轉少 着床不能
搖動 起居仰人이라가 或引歲月方死라

【國譯】

陰陽易病은 男子와 婦人이 溫病에 걸렸다가 차
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
서 交接해 생긴 병이므로 陰陽易이라고 한다. 男
자가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婦人과 交接하
여 생긴 병을 陽易이라고 하고, 婦人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男子와 交接하여 생긴 병을
陰易이라고 한다. 만약 二男, 二女라면 서로 병이
轉易되지 않는다. 易病이라고 부르는 것은 陰陽
이 서로 感動하여 그 毒氣가 상대방에게 전이되
기 되는 것이 물건을 交換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 病의 症狀은 身體의 熱이 가
슴으로 치밀어 오르고, 머리가 무거워 들지 못하
며, 눈에 異物質이 생기고, 四肢가 뒤틀리며, 小
腹이 쥐어짜듯이 아프고, 手足을 흔들어 대는데,
이렇게 되면 다 卽死하고, 그 가운데 卽死하지
않는 경우는 小腹이 당기고, 熱氣가 가슴으로 치
밀어 오르며, 머리가 무거워 들지 못하고, 모든
관절이 늘어지며, 經脈이 虛弱해지고, 氣血이 虛
해 지며, 骨髓가 다 없어지고, 精神이 恍惚하며,
氣力이 점점 쇠해지고, 자리에 누워 움직이지 못

하며, 멀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증세가 생기는데 歲月을 좀 끌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

第三十二章 溫病交接勞復候

【原文】

病雖瘥나 陰陽未和^{한대} 因早房室^{하면} 令人陰腫 縮入腹^{하야} 腹疝痛^{하니} 名爲交接之勞復也^라

【國譯】

溫病이 비록 나았으나 陰陽의 氣血이 아직 調和를 이루지 못한 狀態에서 너무 일찍 房事를 하던 사람의 陰囊이 붓고 나중에는 뱃속으로 오그라들어 疝症이 심하게 되는데 이를 交接에 의한 勞復이라고 한다.

第三十三章 溫病瘥後諸病候

【原文】

謂其人先有宿疹^{거나} 或患虛勞風冷積聚寒疝等疾^{한대} 因溫熱病^{하야} 發汗吐下之後에 熱邪雖退나 而血氣損傷^{하야} 腑臟皆虛^라 故^로 因茲而生諸病^{이라}

【國譯】

오래된 瘡疾病이 있거나 虛勞, 風冷, 積聚, 寒疝 等の 疾病을 앓고 있는데 溫熱病을 얻어 發汗이나 催吐, 瀉下를 시킨 뒤 熱邪는 비록 물러갔으나 血氣가 損傷을 받아 腑臟이 다 虛弱해 지기 때문에 여러 雜病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第三十四章 溫病令人不相染易候

【原文】

此病은 皆因歲時不和^{하야} 溫涼失節^{하야} 人感乖戾之氣則病氣轉相染易^{하야} 乃至滅門^{하고} 延及外人^{이라} 故^로 須預服藥及爲法術以防之^라

【國譯】

이 病은 다 그 해의 運氣가 調和를 잃은 관계로 溫涼이 適切치 못한데, 사람들이 이런 非正常的인 氣候變化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病의 氣運이 傳染되어 滅門의 禍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적절한 藥을 복용하거나 法術을 시행하여 예방해야 한다.

IV. 結論

1. 溫病은 겨울에 寒邪에 感觸되었는데 바로 發病하지 않고 體內에 潛伏되어 있다가 봄에 發病하는 것을 말하므로 伏氣溫病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溫病은 크게 보면 傷寒의 한 部類라고도 할 수 있다. 本篇에 論述되어 있는 內容中 溫病候는 總論에 해당되는데, 주로 發病의 原因과 溫病과 冬溫의 鑑別 그리고 溫病의 變證인 陰陽易, 溫病의 脈證變化, 豫後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아래의 溫病一日候에서부터 溫病九日候와 溫病取吐候 等은 溫病의 傳病過程을 敍述하고 있는데, 그 總體的인 과정은 傷寒, 時氣, 熱病과 대체로 같으며, 그 뒤에 서술되어 있는 溫病에 日常의으로 나타나는 諸般證候도 역시 傷寒, 時氣 등과 비슷하다. 다만 溫病의 특징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傳染性이 매우 강하므로 豫防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관찰이라고 하겠다.

2. 溫病候 第一章의 ‘稱’이 『素問·評熱病論』에는 ‘勝’으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이것이 맞다. 第二章의 ‘諸陽’이 『本書』卷九「熱病一日候」에는 ‘太陽’으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이것이 맞다. 第十三章의 ‘邪’와 ‘親戚’이 『素問·陽明脈解篇』에는 ‘親疎’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妥當하다.

參考文獻

1. 巢元方：諸病源候論，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82.
2. 巢元方：諸病源候論，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民國70年.
3. 南京中醫學院：諸病源候論校釋，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83.
4.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黃帝內經素問校釋，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80.
5. 張仲景原著，成無已注：註解傷寒論，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94.
6. 王焘：外臺秘要，臺北 國立中國醫藥研究所 民國53年.
7. 孫思邈：備急千金要方，서울 大星文化社 1989.
8. 王叔和原著，福州市人民醫院校釋：脈經校釋，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88.